


공동체 소식



연중 제5주일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 이번 주간의 축일

- 2/ 6(월)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 2/10(금)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 반모임 안내

- 내용 : 반모임은 반장님의 주관 아래 모임 날짜와 회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맨해튼 공동체 미사

- 일시 : 2/11(토) 오전 11:30.

■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18(토) 오후 5:30.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Stone Chapel’ 바닥 카펫 교체 공사완료에 감사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37	513	160	39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 주	정예진 한나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정지현, 조지연, 정명숙
차 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9일	65명	339달러	0달러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지혜와 세상 논리의 크나큰 차이를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 정신을 심어 주시어, 열렬한 믿음과 한결 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하며 미사를 시작합니다.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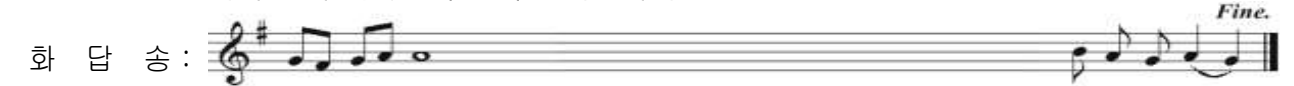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5,16)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행하는 선과 믿음을 확장시켜 줍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8,7-10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 화 답 송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5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3-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쉐 마

주님 영광 드러내는 진정한 단식



오늘 1독서는 시작 부분이 다소 어색합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혈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구절 시작 부분에 한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인데,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사 58,6의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1독서의 내용은 아무리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참된 단식 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는데” 그게 무슨 단식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반기시는 참된 단식은 굶주린 이들과 양식을 나누고, 가련한 이들을 잘 대접하며, 혈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혈육과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리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단식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이 바라시는 단식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주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 58,8은 이렇게 올바르게 단식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빛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생긴 상처가 낫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마태 5,13-16). 이 대목은 지난주 복음에서 봉독한 ‘참 행복 선언’에 이어지는 단락으로 산상설교 전체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산상설교가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란 앞서 이야

기한 것처럼 올바른 단식을 말합니다(마태 6,16-18). 더 나아가 올바른 기도와 자선, 올바르게 섬겨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마태 5,17-7,27).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마태 5,16).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은 자신이 칭찬받고, 자신이 드러나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한다면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진정한 단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2독서로 봉독한 코린토 1서에서 자신이 지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 하지 않고, 약함과 두려움, 떨림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였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면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로 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크지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곧,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착한 행실을 보이는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그런 행실은 올바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참된 단식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낮추며, 자기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행실은 어떠한지 되돌아봅시다. 나는 진정한 단식을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참된 단식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합시다.

- 엄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교무금과 헌금의 차이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마음에 갈등을 하는 신자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바로 교무금 때문입니다. 교무금을 포함한 헌금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기 봉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라에 내는 세금처럼 의무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교무금(敎務金)이란 교회의 유지와 운영 및 여러 활동을 위해 신자 가구에서 매월 일정액을 교회에 봉헌하는 헌금으로, 그 유래는 구약시대 십일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땅의 십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신약성서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십일조를 철저히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마태 23,23 참조)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아 공동 소유로 하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 생활을 하였습니다.(사도 4,32-35 참조)

성서에서 말하는 십일조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신자들은 헌금과 교무금의 형태로 교회에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십일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일”(마르12,17)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와 곡물 같은 것을 봉헌하여 함께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1세기부터는 주일미사 때 빵과 포도주 대신에 헌금만을 봉헌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금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신앙심으로 미사 중에 자기희생의 상징 제물로 봉헌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고자 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바쳐야 하며,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복음묵상

너희는 빛이다

- 너희는 감추어질 수 없는 빛이다.
-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한
- 너희는 가리어지지도 숨겨지지 않을 빛이다.
- 너희가 어둠이고자 하지 않는 한
-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 임의준 신부 “첫날” 中 3